한국학연구 제64집 | 697~727쪽 | 2022.2.

중국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 속 타자 이미지 연구

이상우(李翔宇)*

〈차 례〉

1. 문제제기
2.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속 타자 이미지
3.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 속 타자 이미지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2020년)를 중심으로, 미국 등 타자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이 위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드라마가 갖는 상징성, 높은 시청률 및 드라마 <38선>(2016년)과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미하다는 점 등 이유에서이다. 또한 이 논문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호명'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이 드라마가 중국이 2013년 이후 주창해온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의 외교적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고,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드라마 <38선>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교묘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드라마에서 재현된 제1타자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인종차별'을 일삼는 '비문명적 국가' 이미지,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 이미지, '미국 우선주의'의 '비도덕적 강대국' 이미지는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대별을 이루고 있다. 셋째, 호명과 타자 이미지의 재구성과 관련해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호명되어지는 '객체'에 대한 '주체'로서의 중국 수용자들의 반응인데, 더우반의 평가 댓글과 리뷰를 근거로 볼 때, 드라마에 대한 낮은 평가에 호응하거나 미국을 이성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 수용자들의 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호명이긴 하나, 관방서사에서 한반도 북측 국가를 '북한'으로 최초 호명했다는 점이 아주 이례적이다. 이는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미국의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의도가 자칫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역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의 다수 제작, 중미관계의 지속적인 악화 등으로 이른바 "항미신극"의 탄생 여부 및 관련 영상작품에 대한 저지 방안 논의 역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고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압록강을 건너>, 타자 이미지, 호명, 미국관, "북한", 수용자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이른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드라마인 〈跨過鴨綠江(압록강을 건너, 이하 〈압록강〉)〉(2020년)을 중심으로,[1] 타자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했고,[2] '항미원조전쟁' 추모 열기는 참전 70주년인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상영된 영상작품

1) 이 논문에서는 1950~1953년 한반도지역의 집단적 무력분쟁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사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6.25 전쟁' 대신 '항미원조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중국 드라마라는 점,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중국에서 '朝鮮戰爭(조선전쟁)' 또는 '항미원조전쟁'으로 호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또한 최근 중국의 공식매체에서 '조선전쟁'에 비해 '항미원조전쟁'의 사용 빈도 높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명명'이나 '호명'은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보는 시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이 논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기에 기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해서만 '북한', '남한' 등 명칭을 사용한다.

2) 이 논문에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이라 함은 '항미원조전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영상작품 전반에서 다룬 작품만을 가리킨다.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의 열기는 1950년대 10편(영화 5편, 다큐멘터리 5편), 1960년대 8편(영화), 1970년대(6편)까지 지속되다가, 1980~1990년대 들어 식어버린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우, 각각 영화 3편과 2편이 상영된 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의 숫자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2000~2009년과 2010~2019년의 경우, 각각 7편(영화 2편, 다큐멘터리 5편(5~6부작/편), 11편(영화 2편, 다큐멘터리 6편(5~6부작/편), 드라마 1편(38부작), 애니메이션 2편)이고, 2020년 한 해에만 12편(영화 2편, 다큐멘터리 9편(9~10부작/편), 드라마 1편(40부작)) 이 상영되었다. 이 중에서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압록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 드라마가 최근 1-2년간 중국 중앙TV채널(CCTV-1 채널) 황금시간대 방영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음은 물론,[3] 드라마 속 미국 등 타자 이미지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4] 이미지는 다른 무엇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가 되기에,[5] 드라마 〈압록강〉 속 타자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중국 대외 인식의 변화를 찾아보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를 볼 때,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6]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타자 이미지 및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억과 재현, 기억의 정치학(politics of memory)과 재현의 정치학(politics of represent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자는 타자 이미지 만들기에 있어서 타자에 대한 '호명(interpellation)'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선행연구들에서 호명과 관련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드라마 〈압록강〉을 연구대상으로, 그리고 호명과 이미지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3) https://view.inews.qq.com/a/20210127A0F7I400(2021.02.05). CCTV-1 채널은 중국인(내국인)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중앙TV 채널인데, 2016년 1월 14일 CCTV-1 채널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드라마 〈육군1호(陸軍一號)〉를 시작으로, CCTV-1 채널은 드라마의 매회 시청률을 공포하고 있다.

4) 이 논문이 드라마 〈압록강〉을 연구대상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5) 전영선, 「'적대'의 이미지와 기억으로 본 북한」, 『문화와 정치』 제5권 제3호, 2018, 79쪽.

6) 관련 연구 성과로 王斑・由元 譯, 「藝術、政治、國際主義: 中國電影裏的抗美援朝」, 『當代作家評論』 第4期, 2012; 이승희, 「전쟁의 정치적 변용-50~60년대 '항미원조' 전쟁영화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17호, 2014; 김란,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역사비평』 봄호, 2017; 한담, 「탈혁명시대 중국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난처함-영화 〈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87호, 2018a; 한담, 「1958년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의 정치성과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 『중국문화연구』 제43집, 2019; 한담, 「중국 신시기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재구성 고찰-「마음 깊은 곳(心靈深處)」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72집, 2020 등이 있다.

을 고찰했다는 점은 이 논문이 갖는 중요한 학술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인)에 대한 인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주기적 혹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인)이나 미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자료는 별로 없다. 이에 중국의 대외관계를 소재로 한, 중국내에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매출액이 높은 영화에 대한 분석은 중국인의 대외인식을 유추해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보인다. 그것은 막연한 감정은 대중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과 이미지를 마주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증강되며,[7] 이러한 감정은 느낌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현실 그 자체를 판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8]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영상작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는 이 논문이 갖는 다른 하나의 학술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선 시기별 중국에서 상영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을 살펴볼 것이며, 이 논문이 드라마 〈압록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힐 것이다. 또한 타자 이미지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3장에서 분석할 주제를 도출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드라마 〈압록강〉 속 타자 미국(인), 조선(인)과 한국(인)의 '이미지'와 '호명'에 있어서의 변화를 찾아 볼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문에서의 분석을 기초로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7) 박형신 ·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6, 92~93쪽.

8) 전영선, 앞의 글, 92쪽. 가상준 등의 연구와 김종수의 연구에서는 중국조선족 사례를 통해 '중국조선족=범죄자(특히 살인자, 보이스피싱'라는 사회적 관점을 만들고 지위를 부여해주는 영향력 있는 담론 생산기구가 대중매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상준 · 김재신 · 임재형,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1호, 2014와 김종수,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44권, 2016 등을 참조.

2.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속 타자 이미지

1)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재미 중국인 학자 마자오(馬釗), 그리고 한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 창작은 기본적으로 신중국 건국 이전 재중 조선인이 갖고 있던 나쁜 이미지－'가오리방쯔(高麗棒子)', '얼꾸이즈(二鬼子)', '아편장사꾼(販白面)'로 인해, 중국 대중들에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한 '원조(援朝)'의 설득이 어려움에 봉착한 점에 기인한다.[9] 즉 '일본인의 앞잡이'나 '일본을 등에 업고 각종 악행을 일삼는 악당'에서 '동지이자 형제'라는 조선인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신중국 정부는 신문, 역사서, 시사 잡지 등 관방 서사와 함께 관방 서사를 대중 서사화하는데 힘썼다. 대중 서사는 인민 대중 동원에 있어서 관방 서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소설, 영화 등 많은 문예작품이 창작되었다.[10] 그 중 영상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1950~1990년대)

	영화	다큐멘터리
1950년대 (9편)	〈上甘嶺〉(1956), 〈長空比翼〉, 〈襄武陵橋〉, 〈前方來信〉(1958), 〈友誼〉(1959)	〈抗美援朝前方新聞特輯〉, 〈抗美援朝〉(1951), 〈反對細菌戰〉(1952), 〈交換病傷戰俘〉(1953), 〈英雄贊〉(1958)

9) 즉 당시 대중들 속에 혼재하는 이른바 "친미, 숭미, 공미(恐美)"의 심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일정이었지만, 조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것 역시 그 중요성 면에 있어서 못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삼시운동(三視運動)'－적대시하고(仇視), 멸시하고(蔑視), 천시하는(鄙視) 하는 운동을 벌였고, 조선/조선인에 대한 선입견·편견을 깨고 좋은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미국에 대한 이른바 '삼시운동'과 관련해 何吉賢·성근제 역, 「"중국"의 재발견－50년대초 '신애국주의'운동과 신중국의 '국제관'을 통해 형성된 중국의 '자기'이해」,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2013, 191~233쪽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0) 馬釗, 「政治、宣傳與文藝: 冷戰時期中朝同盟關系的建構」, 『文化研究』 第24輯, 2016, 104~124쪽; 한담, 「'고려봉자'에서 '계급의 형제'로: 신중국의 냉전적 주체 형성의 특수한 타자 '조선'의 재고찰」,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b, 324~331쪽.

1960년대 (8편)	〈奇襲〉, 〈烽火列車〉, 〈三八線上〉, 〈鐵道衛士〉, 〈慧眼丹心〉(1960), 〈英雄坦克手〉(1962), 〈英雄兒女〉(1964), 〈打擊侵略者〉(1965)	
1970년대 (6편)	〈奇襲白虎團〉(1972), 〈激戰無名川〉, 〈碧海紅波〉(1975), 〈長空雄鷹〉(1976), 〈飛虎〉, 〈堅守文登川〉(1978)	
1980년대 (3편)	〈心弦〉(1981), 〈心靈深處〉(1982), 〈戰地之星〉(1983)	
1990년대 (4편)	〈神龍車隊〉(1992), 〈鐵血大動脈〉(1998)	〈抗美援朝戰爭〉(1992), 〈較量－抗美援朝戰爭實錄〉(1996)

주: 밑줄 그은 영화들은 원작 소설이나 연극, 혹은 영화 삽입곡 등 원인으로 중국인들에게 비교적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임.(연구자의 개별 조사)

[표1]은 1950~1990년대 중국에서 상영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의 열기는 1980년대~1990년대 들어 식어버린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최초로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작된 다큐멘터리 〈抗美援朝戰爭(항미원조전쟁)〉(1992)의 경우에도, 마오쩌둥(毛澤東) 탄생 100주년 및 '항미원조전쟁' 승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항미원조전쟁'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上甘嶺(상감령)〉(1956년), 〈英雄兒女(영웅의 아들딸)〉(1964) 등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중국인들에게 특히 '바링허우(八零後)' 이후 세대들에게는 '항미원조전쟁'이 미국에서의 '한국전쟁'처럼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11]

11) '바링허우'는 1980년대(1980~1989년)생을 가리킨다.

[표2]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2000년대 이후)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애니메이션
2000년대 (7편)	〈三八線上的女兵〉, 〈北緯三十八度〉(2000)	〈半個世紀的回響－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50周年〉(2000), 〈沒有鐵絲網的戰俘營〉(2003), 〈共和國戰爭之抗美援朝戰爭〉(2005), 〈鴨綠江的記憶〉(2007), 〈影響中國曆史進程的事件〉(2009)	〈抗美援朝〉(2001)[12]
2010년대 (11편)	〈邱少雲〉(2010), 〈我的戰爭〉(2016)	〈斷刀-朝鮮戰場大逆轉〉(2010), 〈冰血長津湖〉(2011), 〈爲祖國而戰〉(2011~2012), 〈不能忘卻的偉大勝利〉(2013), 〈偉大的抗美援朝〉(2014), 〈鐵在燒－志願軍第63軍鐵原戰記〉(2015)	〈最可愛的人〉(2014), 〈三八線〉(2016), 〈聰明的順溜之特殊任務〉八一獻禮特輯(2017)
2020년 (12편)	〈金剛川〉, 〈最可愛的人〉	〈抗美援朝保家衛國〉, 〈記憶的力量・抗美援朝〉, 〈英雄〉, 〈爲了和平〉, 〈不朽的豐碑－中國人民志願軍英烈故事集〉, 〈英雄兒女〉, 〈保家衛國－抗美援朝光影紀實〉, 〈刀鋒〉	〈跨過鴨綠江〉

주: 밑줄 그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항미원조전쟁' 참전 50주년, '항미원조전쟁'의 '승리' 50주년과 60주년 기념해 특별 제작된 것임. 드라마 작품 명칭 가운데에 줄을 그은 원인은 각주 12를 참조.

[표2]는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상영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상술했듯이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장작품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했다.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해 2000년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와 다큐멘터리 작품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많은 영상작품들이 중국에서 상영되었다. [표

12) '항미원조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해 1996~2000년 제작한 드라마 〈抗美援朝(항미원조)〉(中央重大革命曆史創作領導小組 기획, CCTV 제작, 30부작, 제작비 3,300만 위안)를 2001년 CCTV-1 채널에서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중국외교부가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이다. 이후 지원군 참전 60주년(2010년), '항미원조전쟁' 승리 60주년(2013년) 상영도 결국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최근까지 방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https://movie.douban.com/review/12898899(2020.12.20).

1]과 비교해 볼 때, [표2]의 세 가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항미원조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룬 중국 최초의 드라마 〈三八線(38선, 38부작)〉이 2016년 방영되었다는 점이다.[13] 둘째, 영화와 다큐멘터리에 이어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겨냥한 애니메이션(〈最可愛的人(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14부작, 2014년)이 방영되었다는 점이다.[14] 셋째, 중국의 '참전'과 '승리'를 기념해 상영된 영상작품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0주년(2000~2003년(영화 2편, 다큐 2편))과 60주년(2010~2013년(다큐 4편))에 비해 70주년은 특히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5]

[표3] CCTV-1 채널, CCTV-4 채널의 황금시간대 방영된 '항미원조전쟁' 영상작품

	다큐멘터리	드라마
2000년대	〈半個世紀的回響－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50周年〉(2000, CCTV-1 채널)	
2010년대	〈偉大的抗美援朝〉(2014, CCTV-4 채널)	
2020년	〈抗美援朝保家衛國〉(2020, CCTV-4 채널), 〈爲了和平〉(2020, CCTV-1 채널), 〈英雄兒女〉(2020, CCTV-1 채널)	〈跨過鴨綠江〉(2020, CCTV-1 채널)

[표3]은 [표2]의 영상작품 중 중국 중앙TV의 CCTV-1 채널, CCTV-4 채

13) 이 드라마는 2016년 4월 중국 지방TV채널(雲南都市頻道)에서 처음으로 방영되었고, 이후 베이징 위성TV(北京衛視), 랴오닝 위성TV(遼寧衛視), 안후이 위성TV(安徽衛視), 광시 위성TV(廣西衛視), 산시 위성TV(山西衛視) 등 중국내 다수의 위성TV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또한 중국 중앙 TV 공식 홈페이지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14) [표2]를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작품이 2014년, 2020년 두 번 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두 영상작품은 서로 다른 영상작품인데, 감독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14년 작품은 14부작 애니메이션이고, 2020년 작품은 애니메이션영화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20년 작품은 지원군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되었으며, 2020년 10월 23일 중국에서 상영되었다.

15) 참전 70주년 기념이 특히 '성대'하게 치러졌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0주년 기념이 '좌담회'의 형식을 취한 것과 달리, 70주년 기념은 '대회'의 형식을 취했다. 또한 60주년 좌담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참전 노병들과 일일이 악수와 위로를 한 뒤 좌담회장을 떠났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대신 기념연설을 했다면, 70주년 대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전원 참석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을 했으며, 『인민일보(人民日報)』 1면에 무려 7일간(10월 20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 '항미원조전쟁' 참전 관련 기사를 실었고, 50주년이나 60주년과 달리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百度百科)에는 '抗美援朝70周年(항미원조70주년)/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70周年(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참전70주년)'과 '抗美援朝精神(항미원조정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널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16] [표2]와 [표3]에 기초해 볼 때, 드라마 〈압록강〉(40부작, 2020년)은 드라마 〈38선〉의 뒤를 이은 두 번째로 '항미원조전쟁'을 직접적으로 재현한 드라마이자, '항미원조전쟁'을 직접적으로 재현한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지방TV채널이 아닌 중앙TV채널(CCTV-1 채널), 그것도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주선율(主旋律) 드라마이다.[17]

요컨대, 드라마 〈압록강〉은 중국에서 방영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에서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상징성을 지닌 작품이며, 상술했듯이 최근 1-2년간 중국 CCTV-1 채널 황금시간대 방영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또한 지방TV채널에서 방영된 〈38선〉과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2)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속 타자 이미지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속 타자 이미지의 변천과 관련해 시기별 대표적인 영상작품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제1타자 미국의 이미지 변화이다.[18] 이승희는 영화 〈奇襲(기습)〉(1960)에 대한 분석에서, '퇴폐/청신(清新)' 이미지로 미국과 중국의 대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19] 이는 김란의 연구에서 내린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 영상작품 속 미군은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묘사가 없이 '대상화된' 적으로 표상되는 것과 다르다.[20] 즉 '항미원조전쟁'을 소재

16) CCTV-4 채널(중국어 국제채널)은 화교·화인,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중국 중앙TV채널이다.

17) 주선율 드라마는 주선율 영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해당 시기 이데올로기 특징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루펑,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본 중국 주선율 영화의 변화 양상 연구－화표장(華表獎) 수상작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3쪽.

18) 이 논문에서는 제1타자－미국(인), 제2타자－조선(인), 제3타자－한국(인)으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구분은 '항미원조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밑줄은 연구자 강조하기 위해 그은 것이며, 이하 동일함.

19) 이승희, 앞의 글, 89쪽.

로 한 영상작품 속 미국 이미지의 첫 번째 유의미한 변화로 보인다. 또한 이승희는 〈英雄兒女(영웅의 아들딸)〉(1964)에 대한 분석에서, 1960년대 들어 영상작품 속 미군의 비중이 낮아지고 단지 (중국)병사의 투사적 면모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21] 한담은 〈戰地之星(전지의 별)〉(1983)을 예로 기존에 악마화되고 희화화 되었던 미군은 형상 자체가 사라지거나 설득 가능한 존재로 등장하여 부정과 비판 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인종 차별로 괴로워하면서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은 중국의 문명적 우월함을 은연중에 과시하면서도 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한다.[22] 이는 김란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1980~2000년)에 상영된 영상작품 속에서 미군은 종전의 대상화된 적으로부터, 적이지만 '설득 가능한 존재'로 재현된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 '가난하지만 문명적 국가/풍요롭지만 비문명적 국가'로 중국과 미국의 대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23]

다음으로 제2타자 조선 이미지의 변화이다. 이승희는 영화 〈上甘嶺(상감령)〉(1956)에 대한 분석에서 타자로서는 미국이 유일하며, 조선(인)은 삽화적으로 등장하는 등 괄호 안에 넣어진 존재로서 관객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호칭이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24] 이어 영화 〈기습〉(1960)에 대한 분석에서, 조선(인)을 '중국=남성/조선=여성'으로 젠더화시키고 중국이 조선을 지켜주는 보호자의 위치로 등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5] 이러한 평가는 김란이나 한담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26] 한담은 1950년대 '항미원조전쟁' 문예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화'된 조선 이미지이고, 1950년대 후반(〈영웅찬가(英雄贊)〉(1958년))을 거치면서 중국인 이미지가 프롤레타리아 전사 혹은 '세계혁명을 주도하는 국제주

20) 김란, 앞의 글, 230쪽.
21) 이승희, 앞의 글, 95쪽.
22) 한담, 2020, 310쪽.
23) 김란, 앞의 글, 233쪽, 244쪽.
24) 이승희, 앞의 글, 82~83쪽.
25) 이승희, 앞의 글, 90쪽.
26) 김란, 앞의 글, 230~231쪽.

의 전사', 혁명후계자로 변화함에 따라 조선인 이미지 역시 '계급의 형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7] 이어 한담은 1980년대 초 '항미원조전쟁' 영화 속 조선(인) 이미지가 또 한 차례의 변화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한담은 1980년대에 상영된 '항미원조전쟁'을 재현한 영화 중 관객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인 〈心靈深處(마음 깊은 곳)〉(1982)을 연구대상으로 항미원조 서사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한담은 특히 '여성' 인민지원군의 등장에 주목하는데, '타자/여성' 역할을 전담하던 북한 대신, 그리고 과거 보조적 역할에 그쳤던 '여성' 인민지원군이 주인공을 등장했다는 점, 그럼에도 여성성의 귀환 즉 '여성' 인민지원군은 남성 권위 회복이라는 당시 주류 이데올로기 요구에 도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일 뿐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체'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28] 또한 김란의 연구의 경우,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상영된 영상작품 속에서 조선을 여성으로 표상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어머니' 상징이 부여된다고 평가한다. 즉 전쟁의 거시적 맥락은 뒤로 물러나고 가족적 관계를 통해 개인적 감정을 강조하는 '개인화·인격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북한군은 – 미군이나 남한군 묘사와는 달리 – 인격체로서는 부재하며, 이는 (핵실험 등으로 인한)중국과 북한의 껄끄러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29]

마지막으로 제3타자 한국 이미지의 변화이다. 이승희는 영화 〈상감령〉(1956)에 대한 분석에서 남한군은 영화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부재하며, 중국에게 있어 남한군은 미국의 주구일 뿐이라고 평가한다.[30] 한국이 '이중 타자화'되었다는 이러한 평가는 한담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한담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시기, 항미원조 서사의 주요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미 제국주의)에 승리한 중국 인민지원군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선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원조의 대상인 '북조선'(북한)은 제2의 타자였으나, '남조

27) 한담, 2018b, 327~331쪽; 한담, 2018a, 69~71쪽; 한담, 2019, 277쪽; 한담, 2020, 307~309쪽.
28) 한담, 2020, 311~314쪽.
29) 김란, 앞의 글, 233~234쪽, 243~244쪽.
30) 이승희, 위의 글, 82쪽.

선'(한국)은 아예 부재하거나 미제의 앞잡이로 '이중 타자화' 되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我的戰爭(나의 전쟁)〉(2016) 예고편 논쟁은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에서 이중 타자화된 '한국'의 등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31] 이와 달리 김란의 연구 중 드라마 〈38선〉에 대한 분석에서, 과거 영상작품 속에서 한국이 '이중 타자화' 되었다면, 드라마 〈38선〉에서는 설득 가능한 존재, 대화 가능한 존재로 표상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남한군은 적이 아닌, (미국의) '총알받이'이자 '피해자'로 표상되었다는 것이다.[32]

요컨대, '항미원조전쟁' 영상작품 속 타자 미국 이미지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대립 → 설득적 담론 구조 → 세련된 형태의 비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 이미지는 '여성화'와 '계급의 형제'에서 점차 부재하거나 사물화되어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이미지는 오랫동안 '이중 타자화' 되어 표상되다가 최근에는 설득 가능한・대화 가능한 존재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인식과 세계 상상이 타자형상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33] 영상작품 속 타자 이미지가 자아 정체성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시기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은 이 논문의 작성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이승희와 김란의 연구에서 '호명'과 관련한 내용이 나옴에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승희는 영화 〈상감령〉(1956)을 분석하면서 영화의 삽입곡 〈我的祖國(나의 조국)〉의 가사 전문을 번역해 논문에 넣었지만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한 별다른 분석을 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가사에 나오는 '승냥이'에 주목한다. 조선에서 1951년 판본 한설야의 「승냥이」를 원작으로 하는 「승냥이」 작품군이 여러 번의 개작과 각색을 통해서 미제의 표상을 만들었다는 지적처럼,[34] 냉전시대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미제국주의'는 '豺狼(승냥이)'로 자주 호명되었다. 또한 김란의 연구에서 드라마 〈38선〉에서 재현된 한국(인) 표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드

31) 한담, 2018a, 62쪽.
32) 김란, 앞의 글, 240쪽.
33) 한담, 2018b, 332쪽.
34) 남원진, 「냉전 체제, 일제와 미제」, 『한국근현대문학연구』 제27호, 380쪽.

라마에서의 '남조선(군)'이 아닌 '한국(군)'으로 호명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호명되어진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하나의 정체성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35] 또한 '명명'이나 '호명'은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보는 시각과 직결되며, '명명'이나 '호명'이 자아 및 타자의 정체성 규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정체성과 이미지는 애초에 같은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호명은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일종인 드라마의 호명(interpellation)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 이미지에 '주체'로서의 중국 수용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제3장에서는 드라마 〈압록강〉에서의 타자 '이미지'와 '호명'에 있어서의 변화를 찾아볼 것이다.

3.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 속 타자 이미지

1) 미국(인) 이미지[36]

드라마 〈압록강〉에서 재현한 미국(인) 이미지는 그 이전의 영상작품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종차별'을 일삼는 '비문명적 국가' 미국의 이미지인데,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미군 중 일반 군인 혹은 포로 내부에서 존재하는 '인종차별'이 아니다. 드라마 〈압록강〉에서는 미군 지휘부 내부, 그리고 유엔군 측 휴전협상 대표 내부의 생각의 차이를 '인종차별'로 살짝 비꼬듯이 묘사한다. 우선, 미군 지휘부 내부의 '인종차별'은 맥아더(D. MacArthur)와 알몬드(E. M.

35) 유진아, 「여성 호명의 젠더 함의와 여성 폭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0집, 297쪽.
36) 한국(인)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미국(인) 이미지 분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미국(인) 이미지 분석 부분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Almond, 미 10군단장) 등 최종 결정권자들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진호 전투를 앞둔 스미스(O. P. Smith, 미 해병1사단장)와 알몬드 간 대화이다.[37]

알몬드: 백 명의 황인종은 한 명의 백인종을 이기지 못한다.(공격하라!)

스미스: 인종주의 광신도! 나의 해병1사단을 절대 무모한 죽음으로 몰지 않을 거야.(제12회)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속승론(速勝論)'자 맥아더 등과 중국을 중요시하는 신중론자들인 스미스, 워커(W. Walker)나 리지웨이(M. B. Ridgway) 등의 의견 차이를 수차례에 걸쳐 보여주고 있고, 장진호 전투에서 동사(凍死)한 지원군 전사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스미스 사단장의 모습을 통해 '인종차별'을 일삼는 미군 지휘부 최종 결정권자의 부정적 이미지는 극대화된다.

다음으로, 유엔군 측 휴전협상 대표 내부의 '인종차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석대표 조이(C. T. Joy) 제독과 백선엽 장군의 대화이다.[38]

조이 제독: 젊은 친구 긴장하지 말게. 휴전협상은 며칠 안으로 끝날 걸세.

백선엽 장군: 제가 보기에 당신은 매우 낙관적이군요. 내일 개성에서 협상이 열릴 텐데,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조이 제독: 한 가지 질문이 있소. 북한 사람과 당신네 한국 사람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요?

백선엽 장군: 네?

37) 장진호 전투에서 맥아더의 Yes맨으로, 무리한 진격 명령을 내려 사태에 일조한 인물로 기록된다.

38) 드라마 〈38선〉의 한국군 소령의 등장과 달리, 드라마 〈압록강〉에서는 함병선, 백선엽, 신상철, 이형근 등 네 명의 한국군 고위급 지휘관의 등장한다. 물론 제34회에 나오는 이형근의 경우 대사가 없고, 제8회에 나오는 함병선의 경우 짤막한 대사를 하나 의미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제11회에 나오는 신상철의 경우, 미군 지휘관과 여러 번의 대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나, 공격할지의 여부를 둔 내용이고, 결국 미군 지휘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나온다.

조이 제독: 어쩌면 이 질문이 좀 웃기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

백선엽 장군: 우리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은 모두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조이 제독: 오, 그렇군.

…

(회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기자들을 보면서)

조이 제독: 저 사람들이 머라고 하는 거요?

백선엽 장군: 왜 우리 측에서 백기를 달고 협상장으로 왔는지 의아해 합니다.

조이 제독: 왜 그러지? 양 측의 색깔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 흰색은 비교적 눈에 띄어 (전투기의)오폭을 피할 수 있지.

백선엽 장군: 그러나 동방에서는 흰색이 투항을 의미합니다.

조이 제독: 정말이오?(제31회)

백선엽은 제31회 외에, 제9회, 제10회, 제32회에서 등장하며, 유의미한 '타자'로 재현된다. 즉 백선엽은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을 잘 아는 존재로 재현되는데, 백선엽의 의견은 미군 지휘관에 의해 대개 무시된다. 이런 면에서 드라마 〈압록강〉에서의 백선엽이 드라마 〈38선〉의 가상적인 인물인 박홍철 소령과 유사하게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존재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백선엽이 실존 인물이고, 더불어 한국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기에 '인종차별'을 일삼는 '비문명적 국가'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차례 등장시킨게 아닌가 싶다.[39]

둘째,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평화와 정의의 수호자' 이미지로 미국과 중국의 대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미원조전쟁'의 발발한 원인과 관련한 드라마의 서사 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중소 동맹조약 체결로 '반침략'과 '극동과 세계평화 및 안보 수호를 보장'받음 → 애치슨(D. G. Acheson)과 트루먼(H. S. Truman)이 중국의 대소 '일변도'에 분개해 극동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기로 결정 → 중국인민해방군 군

39) 방영 금지된 드라마 〈항미원조〉(2001)에서도 백선엽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방영될 경우 〈압록강〉에서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축 결정(1950년 4월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결정, 1950년 6월 30일 마오쩌둥(毛澤東)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최종 서명) → 조선 내전 폭발(저우언라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대남 평화통일 호소문 및 조국평화통일 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 등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서울에 호소문을 전달하러 간 대표가 체포당했다는 내용으로 내전 폭발의 원인을 설명) → 한반도 개입 관련 미국 지도부 회의 결정(한국 원조, 북한인민군에 대한 군사 타격,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 →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만해협 함대 파견에 기자가 '대만이 중국 영토임'을 강조하자 트루먼이 대만을 보호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답함 → 트루먼의 성명에서 '대만지위미정론(대만주권미정론)' 주장(1950년 6월 27일) →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한반도 침략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한 대만을 인질로 삼았다면서 제국주의 본질은 전쟁이라는 결론을 내림 → 미군의 제1차 파병부대 한반도 도착(1950년 7월 1일) 및 미군의 한반도 전면 침략이 개시 → 인천상륙작전 성공 → 미군의 압록강 지역과 중국 안동지역 폭격(1950년 8월~9월) → 마오쩌둥이 일본의 중국 침략이 한반도 침략에서 시작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의 중국의 안보에 미칠 위험성 강조 →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 편성할 것을 결정 → 조선 특사의 구원 요청 →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참전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군의 1950년 6월 대만해협 함대 파견과 7월 한반도 무력개입으로 전쟁의 성격이 '내전'에서 '침략전쟁'으로 바뀌었다면서, 제국주의 본질은 전쟁이라고 마오쩌둥이 평가한 내용이다. 따라서 중국의 참전은 '평화'를 지키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 된다.

전쟁의 발발과 중국의 참전에 대한 드라마 〈압록강〉의 서사 전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2010년과 2020년 '항미원조전쟁' 참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문의 논리와 일치하다. 즉 한반도에서의 내전 폭발 → 트루먼 정부의 무력간섭(70주년 연설문의 경우 '제7함대의 대만 파견' 내용 추가) → 중국의 수차례 경고와 항의 무시 → 미군이 중국 동북 국경지역 폭격 → 중국의 '항미원조'의 정의로운 전쟁 참전이다.[40] 즉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점인데, 기념 연설문에서의

용어 사용 빈도를 통해서도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평화와 정의의 수호자' 이미지로 미국과 중국의 대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표4] 시진핑 국가(부)주석 연설문에서의 용어 사용 빈도(단위: 회)

	和平 (평화)	正義 (정의)	侵略 (침략)	帝國主義 (제국주의)	美國 (미국)
60주년	25	10	10	4	3
70주년	24	9	14 (침입, 조선 침입, 침범 각 1회 포함)	4	4 (미국 1, 미군 3)

주: '평화'와 '정의'의 사용 시 주어는 중국이고, '침략'과 '제국주의'는 미국을 가리킴.

셋째,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의 '비도덕적 강대국'/'운명공동체'의 도덕적 강대국' 이미지로 미국과 중국의 대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41] 주로 약소민족과 약소국에 대한 태도에서 대조를 이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라마 〈압록강〉에서 재현한 1950년 12월 중조 연합군의 평양 입성, 1951년 1월 4일 지원군의 서울 '해방', 그리고 휴전협상 대표의 구성에서이다. 먼저, 1950년 12월 중조 연합군의 평양 입성과 관련해, 마오쩌둥은 조선인민군의 우선적 입성을 지시하며, 지원군 사령관 겸 중조 연합사령부 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지원군이 평양을 '수복'하되, 입성은 조선인민군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령을 내린다(제19회). 또한 1951년 1월 4일 지원군의 서울 '해방' 전후, 서울의 모든 '자원'을 파괴시키는 미군과, 점령

40) 이와 관련해 「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60周年座談會上的講話」, 『人民日報』, 2010년 10월 26일, 3쪽, 그리고 「習近平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70周年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2020년 10월 24일, 2쪽 참조

41) 중국의 '도덕적인 강대국' 이미지 추구라는 관점은 서정경(2016)을 인용했다. 서정경,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주변외교의 발현: 對 중앙아시아 인식 및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56집 3호, 2016, 155쪽. '도덕적인 강대국 이미지' 추구는 본질적으로 냉전시대 소련이나 현재의 미국과 다른 차별화된 이미지 만들기(image making)이며, 주변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 균형(balance of influence) 전략이다. 냉전기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균형 전략을 분석한 연구로 김예경, 「중국의 영향력 균형(balance of influence) 전략과 제3세계 외교: 과거의 경험, 그리고 오늘날의 함의」,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면서, 지원군 간부가 "금이나 은, 달러 등을 발견하면 모두 위에 바쳐라. 때가 되면 조선인민에게 돌려줄 것"임을 강조하는 장면을 통해 비도덕적인 미국/미군과 도덕적인 중국/지원군의 대별이 이루어지고 있다(제22회).[42]

한편, 휴전협상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이미지의 대별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애치슨과 트루먼의 대화, 휴전협상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펑더화이(彭德懷)의 설명 그리고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애치슨: 협상팀은 5인으로 구성됩니다. 수석대표는 조이 제독, 그리고…. 리지웨이 장군이 한국 측 대표로 백선엽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백선엽이 중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하기 때문입니다.(미군 측 4인, 한국군 측 1인)

트루먼: 휴전협상 하는 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오?

애치슨: 그래도 대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루먼: 그렇군.

…

펑더화이: (지원군 측 협상대표 참석자를 지원군 부사령원, 참모장에게 설명)미국 측이 5인 협상팀을 구성했다. 이에 맞춰 우리도 5인을 파견하기로 했다. 조선인민군 대표 3인, 우리 대표 2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

저우언라이(周恩來): 내 생각은 협상팀을 3선(三線)으로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선은 남일 장군을 대표로 하는 협상대표단, 제2선은 리커눙(李克農) 등이 막후 지휘, 제3선은 마오 주석, 김일성 동지와 나 이렇게 셋이 최종적으로 협상 방안과 원칙을 결정짓고, 협상 진전에 따라 적시에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

42) 이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바로 홍군 시절로부터 내려온 중국인민해방군의 '3대규율 8항주의'(三大規律 八項注意)를 연상케 한다. 중국 전문가인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휴전선 인근 마을 촌로(村老)들의 "전쟁 때 중공군들이 제일 친절했다. 민심 얻는 법을 잘 아는 군대였다"는 증언을 빌어 지원군에 대해 현지인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명호, 「김일성, 친중파 대거 숙청…마오는 묵인하고 우호 손길」, 『중앙SUNDAY』 66호 33면, 2019를 참조.

마오쩌둥: 좋네.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주요 협상 상대로 보지만, 우리는 조선 동지들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요(제31회).

드라마 속 중국 이미지는 2014년 이후 중국이 주창해온 외교담론인 '신형 국제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고, 중국외교에서 보여주는 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즉 '미국 우선주의'와 대조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위해, 1950년대 개발한 중국담론 또는 중국적 규범인 '평화공존 5원칙', 그리고 최근의 "친·성·혜·용(親誠惠容)",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 "호혜공영(互惠共榮)" 등을 통해 '도덕적인 강대국' 이미지의 추구와 국제적 담론권(國際話語權, International Discourse Power) 장악에 주력하고 있다.[43]

2) 조선(인) 이미지

드라마 〈압록강〉의 경우, 조선인민군 남성이 비교적 중요한 존재로 재현된다. 이들은 '박 특사', 남일 휴전협상 수석대표, 그리고 무명의 휴전협상 대표이다.[44] 드라마에서 '박 특사'의 실명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조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이었던 박일우로 보인다. 이는 인천상륙작전이루어진 이후 김일성이 박일우를 중국 안동(지금의 단둥)으로 보내 중국지도부와 대책을 협의하도록 조치했다는 점 등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45] 또한 무명의 휴전협상 대표는 후일 외무상으로 발탁된 남일을 대신해 휴전협상 북측 수석대표가 된 리상조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드라마의 다른 등장인

43) 이상우·정영철, 「1961년 조중조약에 대한 재조명: 전문(前文)과 제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151~152쪽.

44) 이 외에도 휴전협상 대표로 조선인민군 장평산 장군(제31회와 제32회)과 나중에 장평산 장군을 대체한 정두환 장군(제32회)이 나오지만, 드라마에서 대사가 없기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45)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解放軍文藝出版社, 1990, 21쪽;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133쪽. 박일우로 보이는 인물에 대한 중국어 자막 소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제4회, 제6회, 제7회의 경우 '朝鮮特使(조선특사)', 제8회에서 '朴特使(박특사)'에 이어 '朝鮮派駐志願軍司令部代表(조선 파견 주지원군사령부 대표)'로, 그리고 제28회에 '朝鮮派駐志願軍司令部代表'로 나온다. '朝鮮派駐志願軍司令部代表'로만 소개되고 대사는 없다.

물들과 달리, 리상조로 보이는 무명의 휴전협상 대표가 휴전협상과정에서 상대 측 대표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지만, 직위나 이름을 중국어 자막에서 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46] 박일우나 리상조는 김일성 단일집단지도체제 구축 과정에서 숙청된 인물이고 현재까지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명 또는 '박 특사' 정도로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중조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47]

한편, 인천상륙작전이후 북측 정세가 위급한 상황에서 박 특사가 중국정부에 출병 요청을 하는 모습이나, 저우언라이－마오쩌둥의 대화에서 나왔듯이 미국이 휴전협상의 상대로 조선이 아닌 중국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쟁이나 휴전협상의 전 과정에서 김일성은 등장하지 않은 채 펑더화이・마오쩌둥(전쟁 지휘)과 리커눙・마오쩌둥(휴전협상 막후 지휘 및 결정)만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은 최근 회자되었던 한반도 문제에서의 이른바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을 잠재우고,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이야말로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호명

(1) '미제국주의'로의 재호명

상술했듯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6.25 전쟁'으로 호명되는 전쟁을 중국에서는 '조선전쟁' 또는 '항미원조전쟁'으로 호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드라마 〈압록강〉의 제목을 드라마 〈38선〉, 그리고 각주 12에서 언급했던 방영금지된 드라마 〈항미원조〉(2001)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동일한 관방서사이지만 드라마 〈압록강〉은 드라마 〈항미원조〉(2001)와 같이 '항미'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46) 리상조로 보이는 무명의 휴전협상 대표는 제31~32회, 제34~37회, 제40회에서 나온다.
47) 특히 리상조의 경우, 1989년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 관련 많은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성씨를 밝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

드라마 〈압록강〉이 '항미'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제목인 '압록강을 건너'는 드라마의 서두에서 나오는 주제곡의 가사 첫 구절 문구에서 따온 것인데, 동 주제곡은 중국 일반대중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혁명가곡(일명 '홍가(紅歌)')인 '지원군 전가(中國人民志願軍戰歌)'이다.

雄赳赳，氣昂昂，跨過鴨綠江。(기세도 당당히 압록강을 건너)[48]
保和平，衛祖國，就是保家鄉。(내 조국 내 고향 평화를 위해)
中國好兒女，齊心團結緊。(용감한 중국의 아들딸들 앞으로)
抗美援朝，打敗美國(美帝)野心狼！(항미원조로 미국(미제) 승냥이를 무찌르자)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보가위국'과 '미국 승냥이에 맞서(抗美)' '미국을 무찌르기(打敗美國)' 위해서이다. 가사의 마지막 문구는 원래 "打敗美帝(미제국주의)野心狼"이었는데, 드라마 주제곡에서는 "打敗美國(미국)野心狼" 즉 '미제국주의'를 '미국'으로 순화시켰다. 또한 드라마 〈압록강〉의 엔딩곡인 〈나의 조국〉은 영화 〈상감령〉(1956)의 삽입곡이자, 마찬가지로 중국 일반대중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홍가'이다.[49] 이 노래의 가사에 있는 "朋友來了有好酒，若是那豺狼來了，迎接它的有獵槍(친구가 오면 좋은 술로 대접하고, 승냥이가 오면 사냥총으로 맞아주겠네)"라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승냥이'는 '미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드라마 〈38선〉의 제목과 비교해 볼 때, '압록강을 건너'라는 제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더욱 명확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인 38선과 달

48) 이하 부분에서 밑줄은 그은 내용은 연구자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9) 〈나의 조국〉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一條大河波浪寬，風吹稻花香兩岸，我家就在岸上住，聽慣了艄公的號子，看慣了船上的白帆。這是美麗的祖國，是我生長的地方，在這片遼闊的土地上，到處都有明媚的風光。姑娘好像花兒一樣，小夥兒心胸多寬廣，爲了開辟新天地，喚醒了沉睡的高山，讓那河流改變了模樣。這是英雄的祖國，是我生長的地方，在這片古老的土地上，到處都有青春的力量。好山好水好地方，條條大路都寬暢，朋友來了有好酒，若是那豺狼來了，迎接它的有獵槍。這是強大的祖國，是我生長的地方，在這片溫暖的土地上，到處都有和平的陽光。"

리, 압록강은 중국과 조선 간 국경 하천이다. 즉 압록강이 중국이 국익 수호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경계라는 의미이다.

드라마의 제목, 주제곡과 엔딩곡의 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볼 때, 관방서사인 드라마 〈압록강〉은 2013년 이후 중국이 대미관계에서 주창해온 '신형대국관계' 외교담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자 스스로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자는 '相互尊重(상호 존중)' 원칙, 그리고 제로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상대방 이익을 함께 고려하자는 '合作共赢(협력윈윈)'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압록강〉은 '항미'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일반대중들이 '항미'를 연상하게 만들고, 향후 미국과의 관계 회복 내지 중미 상호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50] 결국 드라마 〈38선〉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교묘한 형태의 미국 비판을 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심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

그렇다면 호명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 이미지에 '주체'로서의 중국 수용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자. 상술했듯이, 드라마 〈압록강〉은 최근 1~2년간 중국 CCTV-1 채널 황금시간대 방영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누적 시청자 수는 12억 명으로 약 83%에 달하는 중국인이 이 드라마를 본 셈이다. 또한 이 드라마는 중국내에서 아주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중국 최대의 영화・드라마 리뷰 플랫폼 더우반(豆瓣)에서의 평점은 8.7점(10점 만점), '중국판 지식인' 즈후(知乎)에서의 평점은 9.0점(10점 만점)이다. 또한 시청자들로부터 "2021년 최초의 핫템(爆款劇目)", "청년들이 정주행해야 할 드라마" 등으로 꼽혔다.[51] 더우반의 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이 드라마에는 현재 8,086개의 평가 댓글(短評)과 173건의 리뷰(劇評)가 달렸다.[52]

---

50) 최근에 벌어진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한국의 매체는 '무역갈등(중국어로 貿易沖突)' 내지 '무역전쟁(중국어로 貿易戰(爭))'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나, 중국 특히 『인민일보(人民日報)』의 경우는 '무역마찰(貿易摩擦)'이라는 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 https://view.inews.qq.com/a/20210127A0F7I400(2021.02.05).

52) 8,086개의 평점 댓글은 40부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사람들의 댓글이다. 이 외에도 986개(시청 중), 264개(시청 요망)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비교적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표5] 평가 댓글에 대한 호응도('有用(좋아요)')(단위: 개)

평가 / 좋아요 수	높은 평가	낮은 평가
600~500	1	
500~400	2	1
400~300	2	1
300~200	3	
200~100	3	2
100~10	40	17
계	51	21

[표5]는 연구자가 드라마 〈압록강〉의 평가 댓글을 정리한 것이다. 즉 총 8,086개의 평가 댓글 중에서 '좋아요'를 10개 이상 받은 평가 댓글이 72개인데, 그 중에서 드라마에 대한 높은 평가에 호응한 댓글이 51개, 낮은 평가에 호응한 댓글이 21개이다.[53]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낮은 평가에 호응한 댓글인데, "카이후이극(開會劇, 이념 홍보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영상작품을 가리키는 인터넷 은어)", "역사 교과서를 보는 듯"이라는 평가가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를 이어 "일반 군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뤘으면 좋았겠다"는 댓글이 두 번째로 호응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리뷰 173건 중 대부분이 드라마를 높게 평가한 리뷰이고, 낮게 평가한 리뷰는 25건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리뷰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동 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댓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군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지지 않다는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들의 미국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선진국(美麗先進的) 미국"과 "패권적 제국주의(霸道的帝國主義) 미국"이라는 두 개의 미국관이 공존하고, 이러한 두

53)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드라마를 높이 평가한 댓글 중 '좋아요'를 받은 개수는 각각 1개(500~600개), 2개(400~500개), 2개(300~400개), 3개(200~300개), 3개(100~200개)로 집계된다.

개의 미국관을 두고 엑시트(Exit・이탈), 보이스(Voice・목소리), 로열티(Loyalty・충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54] 중미 양국간 인문교류가 최근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기에 중국인들의 대미관이 더욱더 이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55] 이는 '항미'에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으로의 호명

중국 관방매체는 1992년 한중수교 이전의 경우, 한반도의 분단국가를 '북조선(혹은 조선)/남조선'으로, 그리고 수교이후 '조선/한국'으로 호명해왔다.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역시 '북조선(혹은 조선)'과 '남조선'으로 한반도의 분단국가를 호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드라마 〈38선〉에서 '남조선(군)' 대신 '한국(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CCTV-1 채널을 통해 한반도 북측 국가를 '북조선(혹은 조선)'이 아닌, 한국의 호명 방식 그대로인 '북한'으로 호명한 것이 아주 이례적이다. 물론 중국/지원군 지도자가 아닌 미국/미군 지도자의 입을 빌어 '북한/한국'으로 호명한다. 영어로 'North Korea'와 'South Korea'로 호명하면서 중국어 자막은 '北韓(북한)/韓國(한국)'으로 표기함은 모종의 의도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서사 전개를 볼 때, '북한/한국'으로의 호명은 제1회의 한반도 개입 관련 미국 지도부 회의 결정(한국 원조, 북한인민군에 대한 군사 타격,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는 북측의 '평화통일' 방안을 거부하면서 북측 대표를 남측에서 체포하고, 이어 미국 지

54) 張春, 「冷戰後中國人的美國觀: 兩個美國、三種態度與走向理性」, 『開放時代』 第3期, 2004, 89~99쪽.

55) 물론 중국 허난성(河南省) 대학생들의 사례를 분석해 위와 상반된 결과 즉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 연구결과도 있다. 이와 관련해 劉珍玉, 「中美戰略競爭背景下中國大學生對美國國家形象的認知研究－基於對河南省五所高校的調查」, 『北京青年研究』 第3期, 2021, 94~99쪽 참조. 그럼에도 이는 허난성 한 개 성, 대학생(Z세대)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지 않기에 큰 틀에서는 張春(2004)의 연구결과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부가 한반도 무력개입 관련 회의 결정을 하면서 나오는데, 전쟁의 발발 원인과 관련한 서사 전개로부터 볼 때,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의 파괴자는 남측과 그 배후의 미국임과 더불어 미국이 '침략자'임을 강조하는 보조장치로 사용된 것이다. 즉 '북한'으로의 호명은 미국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

4.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압록강〉을 중심으로, 미국 등 타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현재와 현실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드라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드라마 〈압록강〉은 중국이 2013년 이후 주창해온 외교적 이념인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방서사인 드라마 〈압록강〉은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그 이전 시기 영상작품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교묘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항미'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일반대중들이 '항미'를 연상하게 만들고,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심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양면게임(two level game)'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둘째, 타자 이미지 재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 〈압록강〉이 재현한 제1타자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이다.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대별된다. 즉 미군 최종결정권자와 유엔군 측 휴전협상 수석대표 등을 통해 묘사된 '인종차별'을 일삼는 '비문명적 국가' 이미지,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 이미지,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의 ‘비도덕적 강대국’ 이미지이다. 이는 국제적 담론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최근 중국외교행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서구중심적 리더십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중국의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내세우려는 것이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중국위협론’이나 ‘차이나 패싱’을 잠재우고 ‘중국기회론’이나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담론 투쟁은 한국 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논쟁의 영향으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데,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고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관계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호명과 타자 이미지의 재구성과 관련해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호명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 이미지에 대한 ‘주체’로서의 중국 수용자의 반응이다. 드라마 〈압록강〉은 높은 시청률・누적 시청자 수・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미국’ 이미지가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드라마 평가 댓글과 리뷰에 대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드라마에 대한 낮은 평가에 호응하거나 미국을 이성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국뽕’ 영화에 열광하는 중국”이라는 한국 주류 매체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56] 호명되어지는 ‘객체’에 ‘주체’로서의 중국 수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호명하기는 하나, 중국이 관방매체를 통해 한반도 북측 국가를 ‘북한’으로 최초 호명했다는 점이 아주 이례적이다. 물론 ‘북한’이라는 호명이 미국의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 하에 젊은 세대들의 호명에서조차 한반도 분단국가의 지위가 이미 ‘북조선(혹은 조선)/남조선’에서 ‘북한/한국’으로 역전된 현실에서, CCTV-1 채널의 ‘북한/한국’ 호명은 자칫 의도와는 다른 메시지

5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211511035756(2022.01.04).

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수교이후 중국이 관방매체를 통해 '북조선(혹은 조선)/남조선'을 '조선/한국'으로 호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누차 강조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의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가난의 공화국', '핵개발 고집', '3대 세습' 등 조선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북한/한국'의 호명이 전세대로 확산될 가능성 역시 크다. 그렇다고 이러한 호명의 의도를 외면한 채 한국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만은 안 된다. 즉 한국의 뉴스에서 회자되는 '미중대결에서 한국을 중국편으로 만들기' 위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다거나,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인정하는 메시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호명'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정신'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많은 영상작품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57] 2020년 7월,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廣播電視總局)은 '항일전쟁', '항미원조전쟁', 그리고 '중국 코로나19 방역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의 제작 및 방영과 관련된 지침을 내보냈다. 여기에서 "상식에 어긋나거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오락적(娛樂的)인 요소를 넣은 항일전쟁 드라마는 방영 금지시킬 것"임을 강조했다.[58] '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중국 드라마 중 일부는 역사 왜곡, 일본인에 대한 어이없는 설정 등으로 중국 대중들에게 이른바 "항일신극(抗日神剧)" 즉 '전쟁 막장드라마'로 비난받는다.[59] 최근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의 다수 제작, 중미관계의 지속적인 악화 등으로 이른바 "항미신극(抗美神劇)"의 탄생 여부 및 관련 영상작품에 대한 저지 방안 논의 역시 핫이슈로 부상

57) 2021년 1월 15일부터 CCTV-9 기록채널에서 〈뜨거운 피-위대한 항미원조(6부작)〉가 방영되었고, 〈英雄連(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長津湖(장진호, 이미 개봉)〉, 〈浴血無名川(피로 물든 무명천)〉, 〈上甘嶺之四十三天(상감령에서의 43일)〉, 〈狙擊手(저격수, 이미 개봉)〉 등 중국의 유명 감독들이 메가폰을 잡은 적어도 5편의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이나 개봉 예정이라고 한다.

58) http://www.gov.cn/xinwen/2020-07/23/content_5529344.htm(2020.10.25).

59) 물론 '항일신극'의 범람에 대한 비판, '항일전쟁' 소재 드라마 창작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및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10편의 '항일신극'은 중국 중앙TV채널로부터 호명 및 비판을 받았다. https://www.sohu.com/a/270299536_100244759(2020.03.10).

하고 있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고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개봉될 작품들과의 비교분석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가 대체로 문학 등 인문학적 시각에서 진행되었다면, 향후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해당 영상작품들에 대한 더욱 입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가상준・김재신・임재형,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1호, 2014.

김 란,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역사비평』 봄호, 2017.

김명호, 「김일성, 친중파 대거 숙청…마오는 묵인하고 우호 손길」, 『중앙SUNDAY』 66호 33면, 2019.

김예경, 「중국의 영향력 균형(balance of influence) 전략과 제3세계 외교: 과거의 경험, 그리고 오늘날의 함의」,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

김종수,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44권, 2016.

남원진, 「냉전 체제, 일제와 미제」, 『한국근현대문학연구』 제27호.

류 펑,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본 중국 주선율 영화의 변화 양상 연구－화표장(華表獎) 수상작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6.

서정경, 「중국의 '도덕정치문화'와 외교: 핵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8권 2호, 2012.

_____,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주변외교의 발현: 對 중앙아시아 인식 및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56집 3호, 2016.

유진아, 「여성 호명의 젠더 함의와 여성 폭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0집.

이상우・정영철, 「1961년 조중조약에 대한 재조명: 전문(前文)과 제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이승희, 「전쟁의 정치적 변용－50~60년대 '항미원조' 전쟁영화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17호, 2014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전영선, 「'적대'의 이미지와 기억으로 본 북한」, 『문화와 정치』 제5권 제3호, 2018.

한 담, 「탈혁명시대 중국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난처함－영화 <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87호, 2018a.

_____, 「'고려봉자'에서 '계급의 형제'로: 신중국의 냉전적 주체 형성의 특수한 타자 '조선'의 재고찰」,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b.

_____, 「1958년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의 정치성과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 『중국문화연구』 제43집, 2019.

_____, 「중국 신시기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재구성 고찰－「마음 깊은 곳(心靈深處)」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72집, 2020.

何吉賢・성근제 역, 「"중국"의 재발견－50년대초 '신애국주의'운동과 신중국의 '국제관'을 통해 형성된 중국의 '자기'이해」,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2013.

2. 중국어 문헌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解放軍文藝出版社, 1990.

劉珍玉, 「中美戰略競爭背景下中國大學生對美國國家形象的認知研究–基於對河南省五所高校的調查」, 『北京青

年研究』第3期, 2021.
馬釗,「政治、宣傳與文藝: 冷戰時期中朝同盟關系的建構」,『文化研究』第24輯, 2016.
王斑・由元 譯,「藝術、政治、國際主義: 中國電影裏的抗美援朝」,『當代作家評論』第4期, 2012.
張春,「冷戰後中國人的美國觀: 兩個美國、三種態度與走向理性」,『開放時代』第3期, 2004.

3. 신문과 인터넷 기사

「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60周年座談會上的講話」,『人民日報』2010년 10월 26일, 3쪽.
「習近平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70周年大會上的講話」,『人民日報』2020년 10월 24일, 2쪽.
https://view.inews.qq.com/a/20210127A0F7I400(2021.02.05)
https://movie.douban.com/review/12898899(2020.12.2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211511035756(2022.01.04)
http://www.gov.cn/xinwen/2020-07/23/content_5529344.htm(2020.10.25)
https://www.sohu.com/a/270299536_100244759(2020.03.10)

電視劇《跨過鴨綠江》中他者形象研究

李翔宇*

本文旨在歸納出電視劇《跨過鴨綠江》中的他者形象的特點和變遷及其對韓國的啟迪。本文之所以選擇電視劇《跨過鴨綠江》作爲研究對象、是因爲該劇具有代表性、收視率高以及與電視劇《三八線》有可比性。同時、本文也關注該電視劇的詢喚功能、並對《跨過鴨綠江》的詢喚機制及其效果進行了分析。

通過分析、本文得出以下結論：第一、《跨過鴨綠江》很好地反映出2013年後中國強調的“新型大國關系”及“新型國際關系”的外交理念。在批判美國霸權主義的方式選擇上、該劇比起電視劇《三八線》更爲精煉和巧妙。第二、該劇所塑造的美國形象。該劇用“種族歧視隨處可見的”“和平破壞者和侵略者”“美國優先”的“不道德大國”等美國的負面形象襯托了中國的正面形象。第三、該劇隱含的“詢喚”機制。首先、通過對豆瓣中該劇的短評和劇評的分析發現、該劇的詢喚功能未能引起部分觀眾的共鳴。其次、爲了塑造美國的負面形象、該劇中朝鮮被美國人詢喚而成爲“北韓”、但這種詢喚可能會引發中國及韓國觀眾的某些誤會。第四、隨著抗美援朝題材影視劇放開、是否會出現“抗美神劇”以及如何防止出現“抗美神劇”成爲了現下熱議話題。影視劇創作與批評應良性互動、這種良性互動會是防止抗美援朝題材影視劇出現“神劇”的有效方法，作爲學者有必要持續關注和積極參與到這種互動中。

關鍵字：《跨過鴨綠江》；他者形象；詢喚；美國觀；“北韓”；受眾

논문투고일 : 2021년 1월 17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2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2월 16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Ocean University of China